제7절 행곡리(杏谷里 : 1·2·3·4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마을 앞으로 흐르는 불영계곡(佛影溪谷)이 왕피천과 합류되고 서쪽은 불영계곡과 인접하여 있으며, 남쪽은 중첩된 산맥이 수곡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북쪽은 금산이 바라보이고, 바리재(海嶺)를 넘어 울진읍 읍남리와 경계를 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2003년에 조성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마을 입구에 비보 숲인 '수(藪)'가 조성되어 있다.

2. 마을의 역사

1) 구미(龜尾)

이 마을은 고려말에 임씨(林氏), 장씨(張氏), 방씨(方氏) 3성(三姓)이 개척하였다 하나 미상(未詳)이고 그 후에 광산 이씨(光山李氏)와 영양 남씨(英陽南氏)가 개척하여 남씨(南氏)가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구미(龜尾)라 함은 마을을 감싸고 있는 산의 꼬리 부분이 거북의 꼬리와 같다 하여 구미라 하였다 한다. 고산서원지와 격암사당이 있다. 또 광천 변에 '울진 유학의 성소'인 주천대가 있다.

2) 내앞(川前)

이 마을 앞에 금산(錦山) 지맥(支脈)이 동쪽으로 뻗어있고 마을 앞 광천(光川) 건너 수십 척의 석벽(石壁) 중턱에 석실(石室)이 있다. 신라시대에 원효대사가 여기에 암자를 짓고 수도(修道)하였는데, 매일 아침저녁으로 바위구멍에서 쌀이 조금씩 나왔다 하여 이곳을 천량암(天糧岩)이라 하고 마을 이름도 미고(米庫), 곧 쌀고라 하였는데, 후에 발음이 변하여 살구(杏谷)라 부르고 있다.

3) 샘실(泉淵)

마을 중앙에 샘터가 있어 맑은 물이 솟아올랐다. 이 샘터를 중심으로 연못을 이루었다는 유례가 있어 마을 이름을 샘실이라 부르게 되었다 하며, 이 마을은 1686년경에 안동 권씨(安東權氏)가 개척하였다 한다.

4) 화임질(花林, 上川前, 海鹽洞)

옛날에 호수(湖水)로 이곳까지 밀려 들어온 바닷물로 소금을 만들었다 하여 해염동(海鹽

洞)이라 한다. 지금도 “모래등질”이라는 곳의 모래가 바닷모래와 흡사하다 한다. 또는 냇물의 상류에 위치하였다 하여 상천전(上川前)이라고도 하고, 꽃이 많이 있는 곳이라 하여 화임질(花林)이라 부르고 있다. 이 마을은 1500년경에 단양 우씨(丹陽禹氏)가 개척하였다 하나 미상(未詳)이고, 1600년경에 정선 전씨(旌善全氏)가 이주(移住)하여 화임질(花林)이라 부르고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3. 가구 분포

행곡리에는 155세대가 거주하며 샘실[행곡1리]은 67세대, 구미[행곡4리]에는 24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영양 남씨(英陽南氏), 담양 전씨(潭陽田氏), 정선 전씨(旌善全氏) 등이 집성촌을 이룬다. 내앞[행곡2리]은 29세대가 거주하며, 신안 주씨(新安朱氏), 여양 진씨(驪陽陳氏), 울진 장씨(蔚珍張氏), 안동 권씨(安東權氏) 등이 분포하고 화임질[행곡3리]에는 35세대가 거주하며, 정선 전씨(旌善全氏), 강릉 유씨(江陵劉氏), 강릉 최씨(江陵崔氏) 등이 세거한다.

4. 마을의 특징(特徵)

1) 격암선생별묘(格菴先生別廟)

격암(格菴) 남사고(南師古)선생 별묘는 1837년(헌종 3)에 남사고의 직계 자손인 남명옥(南明玉)과 방계 자손인 남치붕(南致鵬)이 ‘북평[근남면 구산1리 뒷들마을]’에 세웠으며, 1965년에 방손인 우현(禹鉉)이 구미마을 율곡에 옮겨 세웠다. 구미동[龜尾洞, 근남면 행곡4리]에 위치한다. 최근에 마을 유림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한울원자력본부의 지원을 받아 개축됐다.

2) 고산서원지(孤山書院址)

고산서원(孤山書院)은 행곡4리로 들어가 구미교 전면에 있다. 고산서원은 주천대 부근에 살면서 후학을 가르친 만휴(萬休) 임유후(任有後)와 울진현령으로 재임하면서 지역의 교육사업에 많은 공적을 남긴 서파(西坡) 오도일(吳道一), 오도일이 존경한 동봉(東峯) 김시습(金時習)을 배향하는 의례 및 교육공간이다. 고산서원은 오도일이 김시습의 절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주천대 옆에 동봉묘(東峯廟)란 사당을 짓게 되는데, 이것이 후일 고산서원이 태동한 계기라고 볼 수 있다. 애초에는 구암사(龜菴祠)라 칭했으며, 후에 왕이 사액(賜額)하면서 고산서원으로 개칭했다.

3) 주명기(朱命杞) 효자비각(孝子碑閣)

행곡3리 마을 입구에 있으며 1828년(순조 28)에 효자이자 유학자인 치암 주명기의 후학들과 문중에서 호조에 '정려를 내려줄 것'을 건의하여 1868년(고종 5)에 정려를 받았다. 주명기는 죽암 윤득관의 문하에서 수학한 뒤, 서울에서 당대의 문사들과 교유했다. 특히 김매순(金邁淳)[1776~1840]·성대중(成大中)[1732~1812]과 경학을 논하고, 당시의 정세를 논했다. 1875년(고종 12)에 통정대부 사헌부 감찰에 추증되었다.

4) 주천대(酒泉臺)

근남면 행곡4리에 있는 명승지이자 울진 유학(儒學)의 성소이다. 주천대는 원래 왕피천 너머의 구릉과 이어져 있던 돌산이 강물에 잘렸다고 하여 '수천대(水穿臺)'라 불렸다고 한다. 1628년(인조 6) 만휴(萬休) 임유후(任有後)가 이곳에 우거하면서 풍류적인 의미의 주천대(酒泉臺)라 고쳐 부른 이후 그 이름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임유후가 팔경(八景)으로 꼽은 무학암·송풍정·족금계·창옥벽·해당서·옥녀봉·비선탑·앵무주 등이 있다. 주천대 위쪽으로는 임유후의 유허비가 있고, 아래쪽으로는 동봉(東峯) 김시습(金時習)[1435~1493]과 서파(西坡) 오도일(吳道一)[1645~1703]의 유허비가 있다. 매년 음력 4월 2일에 유림이 모여 임유후·김시습·오도일을 기리고 있다.